

삼성發 성과급 후폭풍... '영업익 연동' 갈등 전방위 확산

최대 6억 성과급 합의 파장
삼성 내부 부문별 갈등 고조
삼성전기 노조도 12% 요구
ICT업계 보상 갈등 확산
車·조선업계 임단협도 촉각

삼성전자가 '최대 6억 성과급'을 지급하는 파격 보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보상 체계 재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확산될 경우 고정비 부담 확대와 노사 갈등 심화, 미래 투자 위축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제도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기업 간 양극화는 물론 한지붕 아래에서의 갈등까지 확산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성과급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메모리 사업부 소속 직원들과 비메모리 사업부, 다바이스경험(DX) 부문 소속 직원들로 갈려진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5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번 협상 과정에서 DX 부문 직원들은 소외감을 호소해 왔다. 당초 DX 부문이 주축인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은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으로 활동했지만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자 활동을 중단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 투표에서도 투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동행노조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치분 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적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내부 갈등은 회사 전체의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당장 삼성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기 노조는 28일 진행되는 14차 교섭에서 영업

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기 노조는 과반 노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 교섭 동력이 제한적이지만 상황은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 2024년 출범 당시 20%의 조직률에서 현재 34.2%(4102명)로 증가했다. 삼성전기 노조 1800

여명이 추가로 가입할 경우 과반노조의 지위 및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도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기준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노조 역시 30%대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와 조선업계는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직접 연동하려는 분위기가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전년 대비 인상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과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당기순이익이 10조3648억원을 기록했다. 노조 요구에 맞춘다면 약 3조1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3조 1000억원에 올해 현대차가 공시한 미래 차 투자 계획(17조8000억원)의 17.5%에 해당한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환과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으로 투자 재원이 사라진다면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성과급 기준을 구체적인 이익 비율로 요구하는 것은 과거와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와 달리 성과급 배분은 사실상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당장 조합원들의 배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사례가 향후 제조업 전체 임단협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기업이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IT 수출 호조에 기업심리 반등 제조업, 기준선 100 넘어섰다

5월 전산업 CBSI 98.9 기록
전월보다 4.0포인트 상승
비제조업, 운수창고 중심 개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 수출 호조와 운수창고업 개선에 힘입어 기업 체감경기가 반등했다. 전산업 기업심리는 아직 기준선 100을 밑돌았지만, 제조업은 100을 웃돌며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5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8.9로 전월보다 4.0포인트(p) 상승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를 활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전산업 CBSI는 4월 94.9에서 5월 98.9로 올랐다. 다음 달 전망 CBSI도 97.6으로 전월보다 3.7p 상승했다. 중동전쟁이 이어졌지만 제조업은 반도체 등 IT제품 중심의 수출 호조가, 비제조업은 운수창고업과 도소매업 업황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기업심리는 기준선을 넘어섰다. 5월 제조업 CBSI는 100.8로 전월 대비 1.7p 상승했다. 다음 달 전망도 100.3으로 2.3p 올랐다.

제조업에서는 업황과 자금사정이 상승을 이끌었다. 구성지수 기여도를 보면 업황이 1.4p, 자금사정이 1.3p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으로도 제조업

업황BSI는 80으로 전월보다 6p 올랐고, 매출BSI도 93으로 6p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 전자·영상·통신장비, 기타 기계·장비 등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전기장비는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다. 전자·영상·통신장비는 반도체와 부품업체 실적 호조가 반영됐다. 기타 기계·장비는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비제조업 심리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5월 비제조업 CBSI는 97.5로 전월보다 5.4p 상승했다. 다음 달 전망은 95.9로 4.7p 올랐다.

비제조업에서는 채산성과 업황 개선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성지수 기여도는 채산성이 1.9p, 업황이 1.4p였다. 운수창고업은 외항화물 운송업체의 물동량 증가와 운임 상승, 5월 초 연휴 기간 국내 여객운송 확대 영향으로 업황과 채산성이 개선됐다.

도소매업도 화학제품, 철강재,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전문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나아졌다. 연휴 기간 소비 확대도 영향을 줬다. 예술·스포츠·여가업종은 연휴와 가정의 달 행사, 기온 상승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로 수요가 늘었다.

기업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은 여전히 비용 부담에 집중됐다.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 비중이 32.8%로 가장 높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 17.7%, 내수부진 15.5% 순이었다. 비제조업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18.0%로 가장 높았다. 불확실한 경제상황 17.7%, 내수부진 17.0%가 뒤를 이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국가대표급 카드혜택의 시 작

KB ALL 카드

그라운드를 가리지 않는 ALL라운드 혜택

KB YOU Prime 카드

YOU연한 라이프에 YOU용한 맞춤 혜택

KB NEED Edu 카드

꼭 필요한 교육 NEED에 집중 혜택

□ KB ALL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2만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5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1만5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 KB YOU Prime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K-World(CB))) 3만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2만3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K-World(CB))) 2만3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2만2천원) □ KB NEED Edu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2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8천원), 일반카드(국내외겸용(MSA)) 2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1만5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4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외겸용(MSA)) 2만5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4천원) ■ 연회비 지불: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회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이례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회비가 발생 시 정산일 기준 최소 2개월 유이자월부 수수료율 적용 - 무이자월부 거래 연회비 시 가비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거래 기간의 유이자월부 수수료율 적용 - 그외의 경우 정상이자율은 상환상 상사업정리율과 상호금융 기계사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계약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 개인 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제외조제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6-C2b-02152호 (2026.02.13 ~ 2027.02.12)

KB 국민카드